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유 인 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문화에서의 안전은 만약에 있을 일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대처하는 마음에서 안전은 시작된다. 문화와 예술은 사람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 이러한 문화와 예술에 안전을 망각한다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상처뿐이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에도 안전은 있어야 한다.

문화가 꿈이 되고,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면서 항상 안전과 함께하는 예술인, 서울문화재단 유인촌 대표를 만났다.

늘 편안하고 따뜻한 이웃집 형님같은 유인촌 대표는 안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안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예술인이며, 연인이고, 안전인인 유인촌 대표의 안전세계로 들어가 보자.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600년 역사의 고도 '서울'을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워,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04년 서울시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문화예술 기관입니다.

서울 시민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고, 공연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 벤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열악한 대학로 예술인들을 위한 연습실 운영, 젊은 예술가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대표적인 행사로 시청을 태극기로 뒤 덮었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5”와 “청계천 복원 개통기념” 행사를 우리가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와 안전은 별개로 볼 수 있으나 안전시설 위에 다양한 문화의 장이 펼쳐진다고 볼 때 안전은 기본입니다. 평소 유인촌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안전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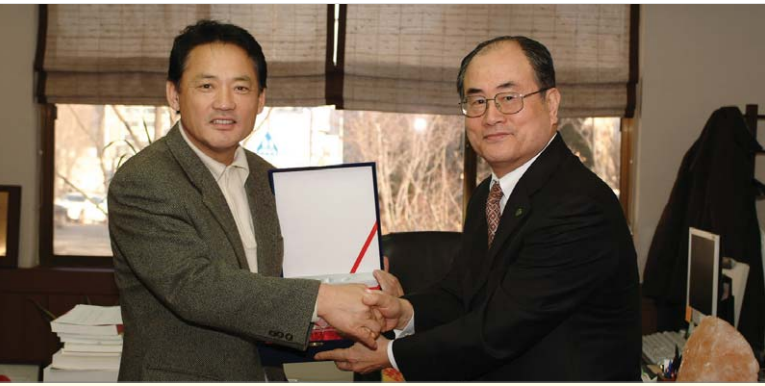
공연예술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현장도 아니고 공연예술이 ‘뭐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공연예술이다 보니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연출을 요구하고 시도하다 사소한 사고에서 대형사고에 이르기 까지 일어 날 수 있는 곳이 공연예술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늘 공연관계자에게 당부하는 부분이고, 우리 서울문화재단이 시간이 걸려도 안전장치를 선 조치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성공적인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5”와 “청계천 복원 개통기념”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행사뿐만 아니라 공연장에도 안전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얼마전 개장된 창동 열린극장입니다.

이곳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배우들은 피난 유도자들입니다. 평소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받아 만약에 있을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유도자로서, 안전관리자가 되어 관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상주 공연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안전불감



중이 문제가 되어 무고한 생명을 앗아 갔습니다. 상주 공연장을 통해 느낀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상주 공연장의 참사는 어처구니없게 운영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 진행에 있어 기본은 인원통제인데,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던 공연 준비라고 봅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가두었다 풀어주면 뛰어 나가기 마련이고, 여기서 분명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진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민의 안전, 관객의 안전에는 한치의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참사를 낳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연문화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사람과 사람에 의한 사고, 사람과 시설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공연문화에서 안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학로의 경우 영세한 소규모 공연장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의 공연문화를 주도하는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고, 소규모 공연장 측도 대부분이 영세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공연문화의 현 주소입니다.

대학로 공연장 천정을 쳐다보면 열키고 설킨 전기줄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조명들은 언제 안전점검을 받았는지조차 모

르고 관객들은 공연을 즐깁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안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은 소규모 공연장에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술년(丙戌年) 새해입니다. 우리 안전인들에게 덕담 한 말씀과, 서울문화재단의 2006년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 각 층에서 시민의 안전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분주한 안전인들 여러분!

2006년에는 꿈을 크게 갖고, 희망찬 병술년을 시작하여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챙기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서울문화재단도 출범한지 2년을 넘는 해인 만큼, 서울을 보다 살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 질서를 잘 지키는 도시로 탄생시키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최종덕 기자〉

새해 볼 많은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랑이 무신하는 해가 되시길!

유인홍
2006. 1. 1